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호 [루계 제2207호]

주제 102

(2013). 1

19

토요일

음력 12. 8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국제사회계의 받으시는 여러나라신문

가장 열렬한 흠토를 김정은령도자

특집

여러 나라 신문이 3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말레이시아신문 『광명일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모시고 『김정일에 국주의를 구현하시여』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김정일에 국주의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쑤아라까르야』는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라는 제목의 모습은 누구나 매혹을 금치 못하게 한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국제 사회에서 가장 열렬한 흠토를 받고계시는분 하면 누구나 조선의 김정은령도자를 훌륭히 칭송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김정일에 국주의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의 현지지도는 세계출판보도 물들의 가장 큰 주목의 대상이다.

작작하신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은 누구나 매혹을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사람들이 감복하게 되는 것은 김정은령도자의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지난해 설 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에게 친부모보다 더욱 따뜻한 정을 부어주시었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 행사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행사에 참석하시어 학생 소년들을 결례 앉히고 그들과 다정하게 담화하시던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고 매혹적이었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뜨거운 인간애와 함께 앞날을 확신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국제사회계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의 고매한 품성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고있다.

김정은령도자를 따라 휘황찬란한 미래에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에게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아 오브저버』도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받드시고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매한 품성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본사기자

백두산천 출위인들을 에파도르 렐레그시에서 명예시민으로 모시기로 결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항일의 네 성영옹 김정숙녀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에파도르 렐레그시에서 명예시민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백두산천 출위인들께 명예시민칭호를 드릴데 대한 시정부 결정서가 8일에 채택되었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에파도르 렐레그시자치정부는 에파도르국가와 지방자치정부들이 제1인민들간의 평화적공존, 협조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이 결정한다.

첫째로, 백두산3대장군 이신 조선인민의 어버이 김일성주석과 21세기 사회주의의 영명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 항일의 네 성영옹 김정숙녀사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그분들께 렐레그시의 최고표창인 명예시민칭호를 드릴것을 결정한다.

둘째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이신 김정은각하께 렐레그시의 최고표창인 명예시민칭호를 드릴것을 결정한다.

본사기자

비상히 높아가는 김정은령도자의 명성

여러나라신문, 방송이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을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높이 칭송하였다.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 또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의 위업 계승』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오늘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의 위업수행의 전두에는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계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지니신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다방면적인 실견, 특출한 령도실력과 숭고한 인

민적풍모를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최대의 사명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위엄을 계승완성하시는 것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이길에서는 한치의 드림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김정일령도자의 유훈을 빛나게 판찰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령도에 따라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의 위업을 끌어들여 조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였다.

것이다.

네 말신문 『찌르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화를 모시고 『김정은 세계의 강위력한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에 대한 령도를 시작하신지 1년만에 세계의 위대한 령도자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이를 친양하는 행사들이 전세계를 훤플고있다.

웬남중앙TV방송은 『체일 알고싶은 령도자 김정은』이라는 제목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과 인공지구위성발사 등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방영하

서방의 간섭과 비난을 무릅쓰고 위성발사를 성공으로 이끌고자 힘써온 그이의 위인상과 담력을 세계가 높아고있다.

그처럼 조선을 비난하던 미국인들도 김정은령도자의 사업성과를 령일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그이께서 조선을 부강번영으로 이끄시는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삼아 축원한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지난 1년간 새로운 품격을 표시하였다.

그 기간 조선의 면모는 많아졌다.

세계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이끄시는 조선을 주시하고 있다.

본사기자

제17차 김정일화축전이 진행된다

주체102(2013)년 2월중순부터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성, 중앙기관들,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외국의 벅들이 참가하게 된다.

지방에서도 불멸의 꽃전시회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참관사업이 진행된다.

제17차 김정일화축전은 광명성절을 우리 인민과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기념하는데 기여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을 위대한 유훈관찰에 더욱 힘있게 고무주 동하게 될것이다.

제17차 김정일화축전은 광명성절을 우리 인민과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기념하는데 기여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을 위대한 유훈관찰에 더욱 힘있게 고무주 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준비위원회 결성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준비위원회가 9일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관하는 광명성절을 민족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결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차상보, 최수봉 부의장들이 선출되

조국통일을 위해 헌차제 사워나가자

끼르기즈스딴고통련 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판권해나갈것을 주장하여 끌려온 김정은은 령도자로서 조선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우리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파감히 벌려나갈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외세

6. 15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주장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족시보』가 1일 과동의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6.15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의 지향을 막을수 없었다고 글은 주장하였다.

글은 지난해 대내외정책에서 실체를 거듭하여 유익한 글을 막을수 없었다고 글은 주장하였다.

조미사이에 론의 해결되어야 할 복잡한 핵문제를 민족 내부문제인 북남관계와 결부시킨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이 해결 안되면 대화도, 협력도 필요없다는식의 태도는 동족대결을 공연히 선포한 것이다.

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본을 따라서 『개방』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공화국의 존엄

들이켜보면 지난 5년간 북남관계가 지금과 같은 지지로 북과 남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은 바로 남조선 현 보수집권세력의 동족대결정책에 있다.

남조선 현 『정부』가 출현하면서 자기의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온 것은 『비핵, 개방, 3,000』이었다. 『핵문제』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몇몇 돈으로 상대방을 유혹하려는 이 『정책』은 공개된 첫날부터 온 겨레의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현실은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자면 그에 책임있는 미국이 공화국과 마주앉아야 하며 대조선 적대시압살정책의 포기 등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요구하는 비핵화는 그 누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가 아니라 전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이다.

글은 남조선의 각계층 민족은 당국의 탄압을 박차고 성명,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통일남원을 내외에 밝히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지적하였다.

제17차 김정일화축전은 광명성절을 우리 인민과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기념하는데 기여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을 위대한 유훈관찰에 더욱 힘있게 고무주 동하게 될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남북공동선언리행과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자주당의 당당한 발걸음을 재촉해나가자.

글은 리명박 『정권』의 집권 5년은 민생파탄, 남북관계 개악으로, 민족주의파탄으로 남조선국민들과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고 규탄하였다.

겨레의 민족자주통일의 굳센 의지는 그 누구도 꺾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글은 『포괄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페키지 딜』에 간판 바꾸어 단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이 모방도 제대로 안된 그러한 오작품을 새로운 『해법』이나 되는듯이 북남관계에 적용하겠다고 한동안 떠들어왔지만 그대로 대결정책의 결과는 세상사람들의 조소와 북남관계악화의 심화에 이르러서는 『원칙있는 유연성』이라는 해괴한 날말까지 만들어 대결을 합리화한 남조선 현 보수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배격을 받고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동족을 고립압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대결과 전쟁만을 악랄하게 추구해온 것이 현 남조선 당국이다.

남조선반통일세력이 동족대결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민족에게 쓰라린 분별의 고통만이 지속될것이라는 것은 없어버린 5년이 심각한 교훈으로 가르쳐주고있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략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든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

길수로 보는 2012년의 조선

호 2호기의 성공적발사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구사단에 새겨진 계승의 첫 발걸음

김정은원수님의 판문점시찰과 8.25경축연회연설

전국어머니대회를 비롯한 감동의 대회들

전반적 12년제무료의무교육의 실시

평양의 한복판에 일떠선 행복의 창조물들

런던올림픽경기에서의쾌승

혜성같이 등장한 모란봉악단의 감동적인 공연

미국의 태임》지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2012년의 첫째가는 명인」으로 모심

내나름대로 꽂아보니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한해가 되고 열두사변이 됩니다.

그 사변중의 사변인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성공은 해가 바뀐 지금도 세인의 화제거리가 되여 행성을 들썩이게 합니다.

제가 조국의 위성발사소식을 들은 것은 어버이장군님 서거 1돐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에 와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조국이 대국들의 압력을 박차고 어려운 혹한의 날씨에도 인공지구 위성을 발사하였으며 9분 27초만에 위성을 정확히 자기 궤도에 진입시켰다는 방송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해외동포대표단 성원들은 너무 기뻐 모두 경정의 눈물을 흘리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조선이 세계적으로 지구궤도에 우주기구를 전입시킬 능력을 가진 10번째나라로 되었다.」고 평한 것처럼 과학기술위성의 성공적발사는 우리 조국의 최첨단에 이른 과학기술과 자립경제의 승리이고 자주적존엄과 배짱의 승리이며 선군정치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을 단번에 우주강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한 두고두고 기억될 역사의 그날이 바로 행운의 수 12가 세번이나 겹친 2012년 12월입니다.

제가 평양에서 만난 한 재미동포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그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과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2월에 새상이 보란듯이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렸으니 이 기쁨을 무엇이라 표현할길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대련에서 기업을 하는 동포네성이 『길수 12가 세번이나 겹친 행운의 날에 세계를 둘러운 특대사변이 일어났으니 오늘은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의 날이다. 우리 조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한 말이자 우리 해외동포들의 공통된 심정입니다.

이번에 조국에서는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에 크게 공헌한 101명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였습니다. 한 번에 101명의 영웅이 태여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수자다 뜻깊은 주체 101(2012)년과 일치하니 더욱 자랑스럽고 조선민족된 긍지를 가지게 합니다.

2012년의 감동깊은 학폭들을 되새겨보느라면 어버이주석님탄생 100돐을 반만년민족사의 최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4월의 환희도 어려옵니다.

드넓은 광장에 경축의 꽃물결이 설레이는 가운데 온 세계에 울려퍼진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첫연설, 조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을 표시하며 광장을 지나가던 열병대오, 노크트립대표단…

분에 넘치게도 해외동포들을 대표하여 주석단에 서서 위인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고 그분과 따뜻한 인사도 나누었던 저로서는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 탄생 100돐이 되는 해에 환생하시여 우리 앞에 서계시는 것 같아 격정의 눈물이 샘솟고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앞길을 환히 밝힌 원수님의 력사적인 첫연설은 미국의 CNN, 영국의 BBC를 비롯한 세계 1만 2000여 개의 언론사들이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 수십억명이 시청하였으니 정녕 세계가 함께 경축한 태양절 행사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마다 12가 새겨진 사변은 이뿐이 아닙니다.

조국동포들의 한결 같은 열망을

반영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모시는 력사적인 결정이 발표된 것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였습니다.

원수님의 후대사랑에 온 대회장이 아이들의 눈물바다가 되었던 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는 감동의 학폭도 합침면 12가 되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행사였고 어린이들을 대통령처럼 비행기로 초청하여 성대한 국가행사를 치른 뜻깊은 그날도 6월 6일이어서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합니다.

행운의 2012년에 채택된 전반적 12년제무료의무교육제의 실시는 또 얼마나 행성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까.

격언에 일년지계는 놓사짓는데 있고 십년지계는 나무심는데 있으며 백년대계는 후대교육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인이 부리워하는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나라에서 이제 12년제무료의무교육제까지 실시되게 되었으니 우리 조국의 창한한 래일이 환히 안겨옵니다.

우리 조국이 돈이 많아 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꽃피운 2012년의 전설이고 사변입니다.

우리 조국은 지난해 런던에서 진행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세인의 예상을 깨고 금메달 4개를 따냄으로써 축구로 일어났던 1966년의 조선열풍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수자 30과 4를 곱하면 길수가 들어간 120이 됩니다.

참으로 격동과 사변이 가득찬 조국의 2012년 갈피갈피에는 행운의 수 12가 수놓아져 있어 살펴볼수록 신묘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습니까.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여 승리만을 력사에 새겨가는 내 조국의 현실이고 필연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해로 되게 하시

기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2011년에도 삼복칠강행군, 심야 강행군, 눈보라강행군을 이어오시였습니다.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쏴올릴데 대한 간곡한 유훈도 남기신 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꽂아우시려고 지난 운 한해동안 공장과 군부대, 건설장을 려이어 현지지도하시면서 백두산대국의 위력을 높이 떨쳐주시었습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형도 밀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내용의 기록영화를 TV로 보면서도 저는 가슴이 뜻을 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록영화에도 나오지 만 그분께서는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하여 무려 수십차례나 되는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였고 때로는 현지에 나가시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무격려해 주시였습니다. 운반로케트 『은하-3』호의 동체도 정을 담아 쓰다듬어보시고 위성판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시여 밭사의 전과정도 지켜보신 원수님입니다.

조국의 첫 과학기술위성을 뜻깊은 12월 12일에 쏴올리도록 명령을 하달하시여 우주개척의 새 경지를 열어주신분도 원수님입니다.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발사할것!

김정은

2012. 12. 12

사실 조선원주공간기술위원회가 위성발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을 때 국제사회에서는 별의 별 추측이 란무했습니다. 이러다가 위성발사를 2012년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 실패하지 않겠는지 하는 예측과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위성이 하늘로 솟구쳤다는 보도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격체계』를 갖춘다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습니까.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여 승리만을 력사에 새겨가는 내 조국의 현실이고 필연입니다.

이것은 조국의 인공지구위

성은 우주에 날아올랐습니다. 민족의 존엄과 힘이 우주로 치솟고 조선이 세계를 끌어보게 한쾌승은 천재일장군이신 김정은원수님의 지략의 승리이고 담력의 승리이며 탁월한 정치의 승리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1년 12월 말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꼭 열두달이 됩니다. 이 12월에 과학기술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고 한해가 바뀌는 0시에 승리의 장애인 축포를 쏘아올린 우리 조국이 너무도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련일 조선으로로 종종되고 평양의 발걸음이 행성을 크게 뒤덮는 2012년은 사실상 조선의 2012년이였고 그것은 김정은원수님의 2012년이였습니다.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구사단에 거룩한 령도의 자율을 새기신 때로부터 단 열두달 만에 우리 조국을 비애의 바다에서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시고 승리의 자랑찬 2012년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업적은 민족사에 찬연히 빛날것입니다.

한해가 저물던 지난 12월 말 조국에서는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성공에 공원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축하하는 연회가 있었습니다.

한해가 저물던 지난 12월 말 조국에서는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성공에 공원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축하하는 연회가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신 연회장의 공연무대량쪽에는 두개의 운반로케트 즉 『은하-3』호와 아직 누구도 보지 못한 『은하-9』호의 모형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 『은하-9』호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는 누구나 다 알것입니다.

그날의 연회에서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삼천리강우우에 온 세계가 우리보는 천재일장국, 인민의 력원을 일깨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쏴올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용위성을 보다 위력한 운반로케트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하여야 한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주정복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담은 『은하-3』호와 『은하-9』호를 합치면 놀랍기도 행운의 수 12가 됩니다.

* * *
우리 조국에서 희망의 2013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로 밝아왔습니다.

온 겨레, 전세계가 신년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원수님의 육성,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들었습니다.

19년전 온 나라 인민에게 신년사를 하시던 김일성주석님의 그 모습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새해의 웅대한 설계도, 천재일장국 건설의 지름길을 훑어 밝혀주신 원수님을 뵈오며 우리 재중동포들은 누구나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신적인 첫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의념원이고 유훈이라고 하시면서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에 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때 대한원수님의 말씀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가장 곧바른 진로를 명시한 지침이고 2013년 조국통일투쟁의 기치입니다.

지금 우리 재중동포들은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자주통일파 민족의 밝은 래일을 확신하며 신심과 희망에 만난해의 조국통일진군길에 멀쳐나섰습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흥하는 우리 조국에서 새해 2013년은 더 밝고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을 뿐이며 되고 민족의 통일소원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입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 거제가는 앞길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시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뜻깊은 명언, 시대의 명제인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12글자가 민족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통일번영의 기치로 펼려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최은복



↑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운 김근국선수

← 류나민유원지의 릴라클로우즈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올해 신년사의 한 대목이다. 언급된 내용은 길지 않으나 선군의 진리를 다시금 새기게 하며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더듬어보게 한다.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삼삼한 『푸에블로』호사건 하나만 봐도 그렇다.

공화국의 자위적조치에 의해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때로부터 어언 마흔다섯해의 세월이 흘렀다.

승자의 존엄과 폐자의 수치를 가른 그 특대사건은 세계를 휘어온 엄청난 것이어서 군 반세기를 가까이하는 오늘도 그 여운은 여전하다.

공화국을 『굴복』시기려던 미국의 꿈은 물거품으로 되고만 것이다. 세계를 둘씩 캐 한 『푸에블로』호사건은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라는 조선의 대국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미국대통령 존슨은 저들의 사죄문을 보고

나서 미국이 생겨 력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라고 시인했고 전쟁의 불이 불는다면 전세계적으로 20조US\$의 경제손실과 500여개의 큰 도시의 파괴, 10억 이상의 회생과 전지구의 사망화라는 무서운 4대 재난을 가져올것이라고 한것은 우연이 않은 것이다. 그러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어제도 오늘도 담보되고 있다. 씨우면 반드시

단군하는 조선반도의 악순환을 두고 세계의 군사평론가들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이 불는다면 전세계적으로 이끄는 대원수로, 수령으로 높이 빛들여보셔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세월을 넘어, 세기를 이어 흐르는 공화국과 인민의 련전련승의 력사는 대를 이어 위대한 명장을 모신 덕이다.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이나 해역에 단합발의 포탄이 떨어져

<p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나라의 분렬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루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한 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외세에 의해 근 70년 동안 민족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서로 등을 돌려대고 싸워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비록 북과 남에는 수십년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오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동족끼리 대결해야 할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사상과 제도, 정경과 신앙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민족보다 우선시될 수 없으며 민족최대의 속원

인 조국통일의 장애로 될수 없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과 그에 의해 마련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하며 화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군사적 충돌과 엄청난 재난밖에 빚어질것이 없다.

지나온 북남관계사를 놓고봐도 동족대결의 격화는 불파 불, 철과 철이 부딪치는 군사적 충돌만을 초래하였다.

북과 남이 서로 적대하고 대결하면 피해를 입을 것은 우리 민족이고 그를 통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외세이다.

우리 민족이 세기를 이어가며 강요당하는 분렬의 고통만도 참을길 없는데 또다시 전쟁의 참화까지 겪어야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민족적재난은 없을것이다. 지금

않고서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가질 수 없고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하며 화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군사적 충돌과 엄청난 재난밖에 빚어질것이 없다.

지나온 북남관계사를 놓고봐도 동족대결의 격화는 불파 불, 철과 철이 부딪치는 군사적 충돌만을 초래하였다.

북과 남이 서로 적대하고 대결하면 피해를 입을 것은 우리 민족이고 그를 통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외세이다.

우리 민족이 세기를 이어가며 강요당하는 분렬의 고통만도 참을길 없는데 또다시 전쟁의 참화까지 겪어야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민족적재난은 없을것이다. 지금

과 같이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극한선을 넘어 일축족발의 전쟁점상태에 처하여있는 한 조선반도에서는 언제가도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자면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 대결로는 전쟁밖에 초래될 게 없다는것이 지난 북남관계사가 보여준 철리이다.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대결상태해소의 현실적방도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장이며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 협력을 실현하고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본사기자 윤현주

환희의 땅 다시 밟고 싶어

일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태동한 통일전성기, 이 6.15통일시대에 고국땅을 밟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자긍심은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었다. 이 벅찬 시대에 가고 또 가고 싶은 곳이 내 조국이었고 통일전성에 그 무엇이라도 보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늘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바로 그려했던 환희의 땅이 지난 5년간에 일어난 불과 활력을 잃었다. 대결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 와서 파거 5년을 들추며 쟁이아들이야 하고 살았지만 3자의 입장에서 서 조선반도현황을 투시해보

였다. 금시 전쟁이 터질 것 같아 불안감과 우려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조선사람들이었다.

나 역시 그랬다. 여기 이 국땅에 살아도 언제 한번 고국을 익은적 없다. 그래서 내 조국땅에 대결의 칼바람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바스한 불물만이 넘쳐나길 바랬고 그래서 삼천리강과 강하나로 통일되길 오래불망 학하고 대결상태에 놓여있다.

지금 북남관계는 최악의 대결상태에 놓여있다.

이제 와서 파거 5년을 들추며 쟁이아들이야 하고 살았지만 3자의 입장에서 서 조선반도현황을 투시해보

면 대결은 리명박『정권』이 초래하였다. 말하자면 대결의 근원이 리명박의 잘못된 『대북정책』에 있었다.

남에서 행해진 『체제 대결』 소동과 미국과 야합한 북침 불장난 소동들은 조국땅에 시시각각 전쟁의 위험을 몰아왔다. 지난 5년간의 사태발전은 남에서의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적인 대결전쟁정책이 종식되지 않고서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가질 수 없고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하며 화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군사적 충돌과 엄청난 재난밖에 빚어질 것이 없다는 것을 실증해보

주고 있다. 대망의 새해에 북남간 대결을 풍자박산내야 한다. 대결상태의 해소는 내 조국의 분렬을 종식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루는데서 급선무이다.

북과 남이 서로 적대하고 대결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민족, 우리 겨레이고 그것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침략적인 외세이다.

전민족이 조선반도에 드리운 대결의 짐은 구름을 가시는데 괴롭히나 선다면 조만간에 삼천리 내 조국땅에는 화해와 평화, 협력의 산들바람만이 불어넘칠 것이다. 그 때 환희의 땅을 다시 밟고 싶은 것이 나의 강렬한 소망이다.

재종동포 리수자

도 외세가 아니라 자기 민족이다.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힘에 의거하고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민족끼리 공조해야 한다.

세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장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공조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외세의 공조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감으로써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두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다.

김연희

외세공조는 대결공조

세력의 강권과 전횡에 의해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존엄, 리익이 무참히 짓밟히는 사례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외세에 빠았던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예속의 울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실현하여야 할 민족자주권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다. 그런 것만 큼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 문제를 자주적립장에 틀었으나 조선반도에 풀어나가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가 초래하는 것은 대결의 격화이고 전쟁 위험의 증대이다. 현 남조선 보수당국은 집권 기간 『외세우선』론을 내들고 철학적인 외세에게 민족

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째 섬겨버이며 동족대결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남조선집권자가 직접 미국상장을 찾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하면서 동족대결을 공공연히 선포해나섰다. 그런 가하면 외세와 반공화국 압살을 노린 쑥덕공론을 펼려 벌여놓고 그와의 공조로 북남관계를 조국에 풀어갔다. 또한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감행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소동에 함께 하여 『미사일발사』니, 『유엔결의위반』이니,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니 하며 동족대결에 협안이 되어왔다. 이것으로 도 모자라 리명박『정권』은 외세의 반공화국핵소동에 적극 편승하는 통일의 길은 바로 민족공조의 과정이고 그것이 심화되는 행로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힘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고 자기 민족과 공조하는데 통일이 있다. 우리 민족이 민족끼리 있는 통일의 길은 바로 민족공조의 과정이고 그것이 심화되는 행로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을 이루는데서 이족도, 후방

에 역행해나서고 조선반도 정세를 일축족발의 엄중한 전쟁점경에로 몰아갔다.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세공조는 대결공조, 분열공조이며 전쟁공조와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외세에 의해 분열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은 이제 또 다시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게 정치적 흥정의 제물로 내밀질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힘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고 자기 민족과 공조하는데 통일이 있다. 우리 민족이 민족끼리 있는 통일의 길은 바로 민족공조의 과정이고 그것이 심화되는 행로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을 이루는데서 이족도, 후방

에 역행해나서고 조선반도 정세를 일축족발의 엄중한 전쟁점경에로 몰아갔다.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세공조는 대결공조, 분열공조이며 전쟁공조와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외세에 의해 분열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은 이제 또 다시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게 정치적 흥정의 제물로 내밀질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힘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고 자기 민족과 공조하는데 통일이 있다. 우리 민족이 민족끼리 있는 통일의 길은 바로 민족공조의 과정이고 그것이 심화되는 행로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을 이루는데서 이족도, 후방

동족대결로 초래될 것은 전쟁뿐이다

나라의 분렬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루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동족대결의식이 끝수에 까지 뱠리명박보수패거리들은 『비핵, 개방, 3000』과 같은 반통일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있었던 류현적인 전쟁도 동족대결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이러한 비극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며 이 땅에는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70년을 가까이하는 분렬사의 갈피마다에서 우리 민족은 시시각각 전쟁의 위협을 받아왔다. 전후에만도 동족대결에 환한 반통일세력과 외세의 책동으로 『푸에블로』호 사건, 『EC-121』사건, 판문점 사건을 겪으면서 온 겨레는 평화의 절박성을 다시금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보수 『정권』은 출현하자마자 6.15시대의 성과들을 모조

리 말아먹으면서 북남관계를 또다시 국도의 대결상태에로 몰려세웠다.

동족대결의식이 끝수에 까지 뱠리명박보수패거리들은 『비핵, 개방, 3000』과 같은 반통일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남조선당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통일』으로 암암이 조선반도정세가 그야말로 전쟁점경에까지 치달았던 적은 한두번이 아니다.

2009년 공화국의 위성발사 시도 『오격』을 떠들던 남조선당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가 그야말로 전쟁점경에까지 치달았던 적은 한두번이 아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자면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막아야 한다.

우리 겨레가 바라는 것은 북과 남의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이다.

해외의 온 겨레는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남조선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민족의 소중한 삶의 틀을 지켜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피해자는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두 말 할 여지가 없다. 우리 겨레의 삶의 터전인 삼천리 강토가 황폐화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민족의 생존이 심히 위협당하게 된다.

그런데도 리명박보수당국은 새해 정초부터 정치군사적 대결을 더한층 격화시키면서 조선반도에 국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자면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막아야 한다.

우리 겨레가 바라는 것은 북과 남의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이다.

해외의 온 겨레는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남조선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민족의 소중한 삶의 틀을 지켜야 한다.

본사기자 최명제

『정부』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한 『보안법』을 아직도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최근에도 당국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통일원로,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에게 대한 강제수색과 조사 놀음으로 벌리는 등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윤해에도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인 『보안법』의 철폐와 향심수석방투쟁을 계속 강도높이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윤현주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나설 것을 주장

『제 일 한국 민주 통일련합』(한통련)의 의장 순형근이 1일 신년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남조선의 리명박『정권』이 지난 5년간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일삼으며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았다고 글은 단죄하였다.

글은 남북공동선언들을 반대하는 것은 대결을 초래 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은 하루빨리 공동선언리행의지를 표명하고 유흥중에 있는 통일인사들을 석방하여 통일운동단체들을 탄압하는 『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글은 주장하였다.

글은 『한통련』이 6.15공동선언 민족공동위원회를 출현하자마자 6.15시대의 성과들을 모조

리행하였다.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가 3일 서울에서 목요집회를 가지고 파쇼악

경제 강국건설에 고무추동하는 선전화들

한점의 선전화가 수백만 군중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높은 기동성과 호소력, 전투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전화는 사람들의 사상을 즉시에 발동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놓고볼 때 얼마전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선전화전람회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해 질풍같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뚜렷한 강조와 침착적인 수법으로 잘 형상하여 참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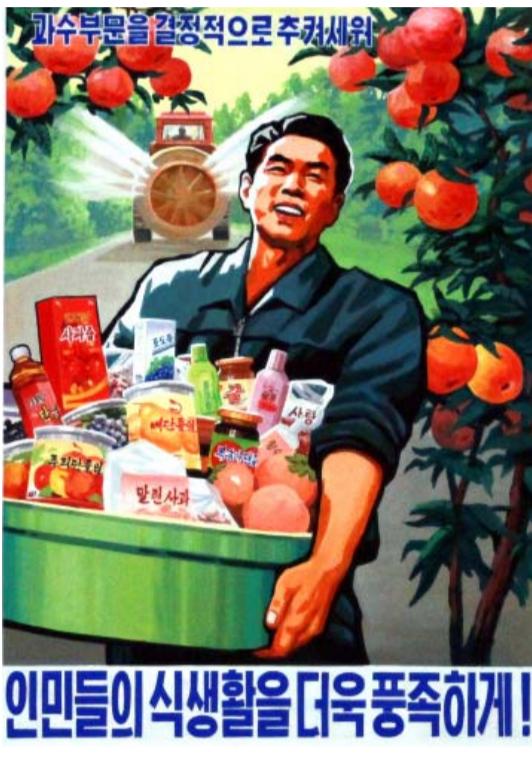
선전화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자!』, 『질좋은 인민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 『모든 지방을 자기 특성에 맞게 사회주의선경으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포등판을



대규모축산기지로!』들도 올해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인민경제 부문별과업들을 힘있고 박력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잘 보여주었다.

이밖에 전람회장에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조국의 산파들을 더욱 푸르게 하자!』,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제도가 은을 내게 하자!』,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차넘치게 하자!』 등 다양한 주제의 선전화들도 있었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조과수부문을 길정적으로 추구세워』



국통일』이라고 씌여진 인장을 얹어세우며 틀어잡고 있는 것을 형상한 선전화 『우리 민족끼리!』를 보면 참판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었다.

전람회를 돌아본 평양 326전선공장로동자 박영철(35살)은 『어느 작품이라 할것없이 보기만 해도 기백이 넘치고 막 힘이 용솟음친다. 특히 선전화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은 정말



마음에 든다. 우리 식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길을 직관적으로 잘 형상하였다.』고 소감을 표시하였다.

리성호 집단체조창작단 배경대지휘자는 전시된 선전화들을 앞으로 진행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반영하여 시대의 결착으로 더 홀륭히 완성하겠다고 말하였다. 전람회는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 시내근로자들의 관심속에 련일 성황을 이루었다.

본사기자 흥법식

가 있었다.

평양뿐 아니라 평안남도 평성시와 자강도 강계시를 비롯한 각지에서도 다양한 체육활동과 민속놀이가 진행되었다. 상기된 얼굴들에 웃음을 담고 달리기와 여러 가지 체육경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건강한 체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해 갈 애국의 열의와 함께 신심과 락관이 어려웠다. 1월 8일에는 또 부산에서 20대들이 동반자살을 꾀했다는 뉴스까지 겹쳐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가 도를 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절망 마음을 무겁게 한다. …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나서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구성원들을 구해낼 수 있는 생명의 사다리 즉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보도하면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자살풍조를 두고 사회적인 범죄라고 비판하였다.

얼마나 판이한 두 현실인가. 삶에 대한 희망과 락관을 안고 사회주의 문명국의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 갈 민의 량만이 넘치는 공화국의 모습과 앞날에 대한 절망과 고통속에 생을 포기하여 살아있는 사람들마저 불안속에 멀게 하는 남조선사회의 현실.

이것이 새해 정초에 비낀 두 사회의 모습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최후승리를 확신하는 조선인민

여러 나라 인사들이

이다. 김정일령도자회고 브라질 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조선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 칙침이다.

조선인민은 승리의 활로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새해에도 조선인민은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거둘 것이다.

로씨아 하바롭스코시 장은 조선에서는 경직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 이것은 강의하고 슬기로운 조선인민의 궁지를 더욱 높여주었다.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투쟁기는 충천하고자 지적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에서 강성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사상적기초로 되고 있다.

조선인민의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평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본사기자

강조

조선인민이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로 국력을 떨치고 과학기술의 위력을 과시한 힘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에踔트 자유사회주의 자당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한길로 전진하고 있다. 김정은원수각하의 발걸음에 맞추어 나아가는 조선인민은 새해에도 기적과 혁혁을 창조할 것이다. 김정은원수각하의 발걸음에 맞추어 나아가는 조선인민은 새해에도 기적과 혁혁을 창조할 것이다.

민주광고-조선친선 및 현대성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에서 강성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사상적기초로 되고 있다.

조선인민의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평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공화국에는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수많은 청소년파워교양기지들이 있다.

학생소년궁전은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이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물소현지에 나오시여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여 1963년에 일떠선 사랑의 궁전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도 그리고 분계연선도시인 개성시와 강계시, 전천군, 자성군, 김형직군, 삼지연군, 청진시, 덕천시 등 지방의 여러곳에 일떠선 학생소년궁전들에도 절세의 위인들의 후대 사랑의 력사가 뜨겁게 어려웠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아동궁전과 소년단야영소건설을 친히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키기도 청소년파워교양기지들이 중단없이 운영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크나큰 은정을 끊임없이 베풀어주시였다.

백두산원인들의 후대사랑의 력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도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에 악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그의 세심한 관심속에 지난해 4월에는 덕천시에 2월16일소년단야영소가 새로 꾸려져 첫 앙생들을 받았다.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척암소년단야영소, 묘향산동산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아영소들에서 학생소년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지며 지역체를 겸비한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 있다.

이 훌륭한 청소년파워교양기지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절세의 위인들의 후대 사랑의 력사가 뜨겁게 어려웠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아동궁전과 소년단야영소건설을 친히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

신

위

체

육

선

수

후

비

교

양

제

도

을

지

나

는

다

양

한

체

육

선

수

후

비

교

양

제

도

을

지

나

는

다

양

한

체

육

선

수

후

비

교

양

제

도

을

지

나

는

다

양

한

체

육

선

수

후

비

교

양

제

도

을

지

나

는

다

양

한

체

육

선

수

후

비

교

양

제

도

을

지

나

는

다

양

한

체

육

선

수

후

비

교

양

제

한겨울에도 더운 물이 활활

— 실리가 큰 태양열 물가열기 —

최근 공화국의 태양열 설비 개발 중심에서 개발한 태양열 물가열기가 은을 내고 있다. 태양열 물가열기로 하면 태양에 네트기로 전환시켜 더운 물을 생산하는 장치를 말한다. 태양열 물가열기는 전력이나 석탄, 가스를 쓰지 않고 순수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아주 힘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열 설비 개발 중심에서 개발한 태양열 물가열기의 수명은 보통 15년인데 이 기간 접월면적 1.5m²인 태양열 물가열기 1대로 얻게 되는 열에너지량은 표준석탄 수천kg(전력 수만kWh 혹은 프로판가스 수천m³)으로 얻는 열에너지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이것은 태양열 물가열기 1대가 자기 수명기간에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그리고 연기 및 먼지를 각각 수십kg, 1t이 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철민 태양열 설비개발중

집붕마다에 태양열 물가열기들이 설치되어 특이한 풍차를 더해주는 만경대 남부락에서도 그 턱을 톡톡히 보고 있다. 레몬에 없는



본사기자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먹는 민족음식의 하나인 묵은 단백질, 식물성지방 등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며 특히 비타민, 무기질 등이 많은 것으로 하여 희로회복에 매우 좋다고 한다. 묵은 계절에 관계없이 만들어 먹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녹두묵, 도도리묵, 메밀묵을 들 수 있다.

◎ 녹두묵

파르스름한 녹두묵을 청

포라고도 한다. 옛 문헌에는 「녹두는 원기를 솟게 하

이 존귀하신 상감마다며 올

릴 닭알을 허투로 가져올수

가 없어서 알을 몸안에 품

고 왔소이다.」라고 대답하

였다.

《그럼 어서 그 알을 바쳐 라!》

《소인의 배안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니 래일아침에

는 꽃 날을 것입니다.》

《?!...》

그러자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알을 품고 왔소이다》

그대는 어이하여 닭알은

바치지 않고 닭을 음소리만

내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판리는 《소인

왕이 관리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닭알 31쪽 가져오

라고 명을 내렸다.

그런데 한 관리만은 이 명

을 듣지 못하여 유모아

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순서대로 왕에게

닭알을 바치는데 드디어 그

관리의 차례가 되었다.